“만해 한글사랑, 석주 스님 역경불사로 계승”

만해학회 ‘석주 스님과 만해사상’ 학술대회

김광식, 석주 스님 생애 분석
평생걸친 헌신적인 역경사업
‘만해 정신’ 계승하려는 행보
포교 · 교육 업적조명 논문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석주 스님<사진>은 ‘현대 한국불교의 산증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현대 한국불교의 중심에 있었다. 역경불사를 비롯해 불교정화, 사회복지, 어린이 · 청소년 포교 등 스님의 손을 거치치 않는 분야가 없기도 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불교정화운동에 매진하고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힘썼던 석주 스님의 생애와 만해 사상의 연관성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됐다.

만해학회(회장 한중옥)는 8월 9일 인제 동국대 만해마을에서 ‘희망 극복의 시대, 석주 스님의 생애와 만해사상’을 주제로 제21차 만해축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광식 동국대 특임 교수는 ‘석주의 삶과 한용운’을 통해 석주 스님의 생애를 구술사로 분석하고 만해 한용운 스님과의 접점을 찾았다.

언론과 잡지 등의 기록을 살펴본 김 교수에 따르면 석주 스님과 만해 스님의 접점은 1923~1928년의 6년이었다. 그 당시 만해 스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신 석주 스님은 만해 스님을 선구자로 전제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석주 스님은 만해 스님이 민족운동, 문학, 불교사상 실천의 측면의 업적에서 선구자가 분명하다고 보면서, 만해 노선이 가장 바른 방향이었음을 피력했다”면서 “석주 스님은 만해 정신을 불교유산운동과 대중불교 운동의 실현, 선교(禪敎) 일치의 불교사상, 보살사상 구현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자 석주 스님은 서울로 상경한다. 당시 석주 스님은 선학원에 머물면서 불교 혁신 활동을 하였는데, 불교혁신론자들과 조계사에서 매주 모여, 불교 혁신책을 연구하고 이를 총무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교단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재야 혁신단체가 모여 불교혁신총연맹을 결성했다.



총연맹을 주도했던 핵심인물들은 모두 만해 스님의 제자였다. 총연맹 대표는 선학원 이사장이었던 경봉 스님(통도사)이었고, 선학원 부이사장 김용담(망월사) 스님은 총무로 활동했다. 그 연결고리를 만든 인물이 바로 석주 스님이다.

김 교수는 “해방공간에서 불교혁신 활동에는 만해 스님의 제자들이 참가했다”면서 “석주 스님의 불교혁신 활동은 만해의 불교혁신 사상을 계승 · 구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석주 스님이 평생에 걸쳐 행한 역경불사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석주 스님의 최초 역경활동은 해방공간의 국문선학간행회였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운허 스님과 석주 스님이 의기투합해 단체의 원장과 부원장을 각각 맡아 국문으로 된 선서(禪書)를 번역했다.

1960년대부터는 법보원을 설립해 역경 사업에 매진했다. 대부분 운허 스님의 번역을 출간했지만, 탄허 스님의 〈보조법어〉 · 박한영의 〈석전문초〉 등도 발간됐다. 故 법정 스님은 법보원이 1960년대 유일 불교 출판사라고 평하기도 했다.

이후 석주 스님은 동국역경원 부원장(1964), 동국역경사업진흥회장(1989), 동국역경원 역경사업 후원회장(1995)을 역임하며 역경불사에 헌신했다.

김 교수는 석주 스님이 이처럼 역경불사 매진한 이유에 대해 “만해의 한글에 대한 사랑과 역경에 대한 소신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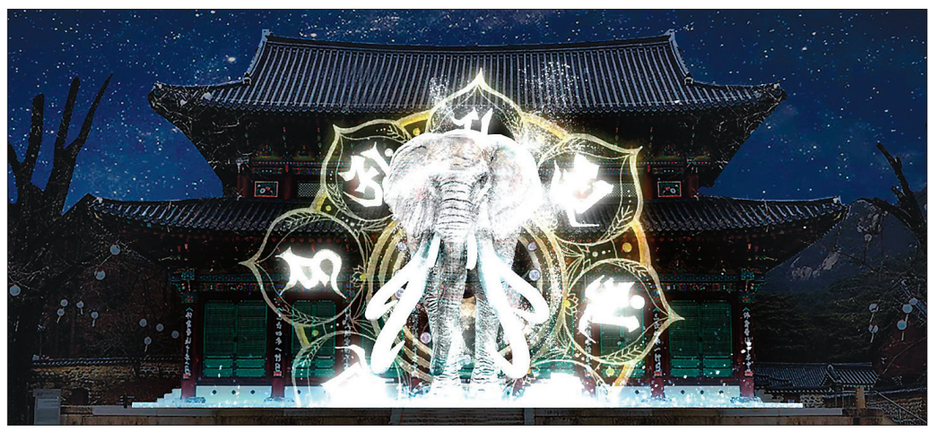
3.1운동을 주도한 만해 스님은 수감됐다가 출옥한 직후인 1922년 9월에 역경단체인 법보회를 창립했다. 법보회는 팔만대장경의 순우리말 번역과 고승 학설을 수집해 발간하기 위한 것이었다. 1937년에는 ‘역경의 급무’라는 글을 〈불교〉 신제3집에 기고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만해의 역경정신이 석주에게 이어졌을 것”이라면서 “석주 스님의 제자 송운 스님은 만해의 시문학에서 석주의 한글화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석주 스님의 역경사업은 만해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행보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석주의 생애와 포교사상’,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의 ‘석주 정일대종사의 교육활동과 중앙승가대’,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석주 스님의 불교혁신 활동’ 등이 발표된다.

속리산 법주사서 펼쳐지는 빛의 향연

문화재청 오는 8월 29일까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첫 선
야경 결합 쌍방향 콘텐츠 구성
미륵사지 · 정림사지서도 예정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법주사 대웅보전에 ‘법주사 창건설화’를 주제로 펼쳐진 미디어 파사드 구현 모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7개 사찰 중 한 곳인 보은 법주사가 첨단 미디어아트로 장엄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는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의 첫 시작인 ‘속리산 법주사 빛의 향연’이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충북 보은 법주사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7월 26일 밝혔다.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은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세계유산에 적용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해 문화재청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공모사업이자 한국판 뉴딜의 하나다. 올해에는 보은 법주사를 비롯해 익산 미륵사지, 부여 정림사지, 수원 화성, 공주 공산성에서 개최된다.

‘속리산 빛의 향연’에서는 세계유산 법주사의 문화재를 활용해 야경과 결합한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선보인다. “법주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첨단기술에 담아 문화유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오리숲길, 수정교, 사천왕문, 종루 등 사찰 경내 · 외에 참배객과 상호소통하며 참여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 기법으로 꾸며진 야간경관을 관람할 수 있다. 행사 중 매일 오후 8시 10분부터 국보 팔상전에서는 ‘무명의 바람을 만나 번뇌의 바다를 헤매다’와 ‘팔상도와 미륵불’이라는 주제로, 보물 대웅보전에서는 ‘법주사 창건설화’라는 주제로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질 예정이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축물 외벽을 가리키는 파사드(Facade)와 미디어(Media)의 합성어로, 건축물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미디어 영상을 보여주는 기법이다.

사전예약을 통해 입장객은 오후 5시 이후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일 관람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한다. 사전예약 접수는 7월 23일부터 보은군청, 법주사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받고 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참여인원은 변동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로 구성하기 위해 공모 선정 사업들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상담해 왔다”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야외에서 거리두기를 하며 관람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유산 콘텐츠를 국민에게 제공해 정부 혁신과 적극 행정의 우수사례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국보 반가사유상 100일 휴식 들어간다

국립중앙博 새 전시관 준비
10월 28일까지 수장고 격납
별도 전용 전시관 마련 예정
‘국립博 브랜드 문화재’ 계획



새로운 전용 전시 공간 마련을 위해 이운되는 국보 금동반가사유상. 10월 28일 새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국보 제78 · 83호 금동반가사유상이 100일 간의 휴식에 들어간다. 두 금동반가사유상의 새로운 전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조치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새로운 전시 공간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반가사유상 전시실 개관 D-100일을 맞아 불교조각실에 전시 중이던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을 수장고에 격납했다”고 7월 26일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국보 제78 · 83호 금동반가사유상을 같은 공간에서 상설전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올해 국립중앙박물관 신년 기자회견에서 처음 확인됐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은 반가사유상 전시실을 기존 3층 불교조각실에서 2층 기증관 입구로 이동하고 약 440㎡ 규모의 전용 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반가사유상을 ‘국립박물관 브랜드 문화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병찬 관장은 “시공을 초월해 감동과 영감을 주는 반가사유상의 보편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가미된 전시 공간을 만들겠다”면서 “루브르 박물관 모나리자 전시실을 보러 프랑스 파리를 가듯 국립중앙박물관의 두 반가사유상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브랜드화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가사유상 전용 전시실은 오는 10월 28일 최적의 건축디자인과 설비를 갖추고 새롭게 공개된다. 새로운 전시를 앞두고 수장고에 격납된 반가사유상은 상태 점검을 포함해 촬영, 조명 테스트 등을 진행하게 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실은 관람객 한 사람 한 사람이 반가사유상의 ‘미소’와 ‘사유’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유물관리 전문가들의 세심한 손길 아래 전시실에서 수장고로 이동하며 100일 동안의 휴식에 들어가는 반가사유상의 모습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등에서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신성민 기자



혜암
미술 공예품
개·점·안·내

5월 10일, 불상·불화·만다라·도자기등을 전시 판매하고자 **경북 포항시 기북면 불원사 경내에 혜암 미술 공예품 매장을 오픈** 하였습니다. 불상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소장성이 많은 희귀불상, 티벳 불상, 현대불상 불화는 티벳, 네팔에서 직접 구입한 여러 가지 만다라를 전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혜암 미술 공예품을 찾아 주시는 스님들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혹시 찾는 불화나 불상이 있으시면 찾아 드리겠습니다.

혜암 미술 공예품 대표 **신 재 훈** 배상

네비게이션에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대곡리 855번지 불원사”**로 검색 하십시오.

문의 010-5652-0174, 010-4504-0174

제 105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 강 일** : 2021년 8월 17일(화)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6